

종합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원 해남 출신 박훈씨 “세금 호민관 역할로 납세자 권익 지킬것”

“강단에서 가르치며 연구해왔던 조세이론을 실무에 적용,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세청 개청 이래 최연소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된 박훈(41)씨는 30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세법은 법대로 이뤄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장한 젊은 납세자 호민관의 활약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런 동 국세청장도 “의

부인 신선히 함으로 국세청에 새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는 특별 주문을 했다는 후문이다.

해남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법학과(학사·석사·박사)를 졸업한 박 씨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로 7년 넘게 세무학을 가르쳐온 경험을 국세청에 접목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박 씨는 “임기 동안 납세자 눈높이에 맞춰 국세청에 새 바람을 일으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연소 국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조세실무와 이론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지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와 열정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고시 출신 동기가 국세청장이 되면 나머지 동기들은 ‘용퇴’를 할 정도로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국세청으로선 파격적인 발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세청 안팎에선 이론으로 무

부인 신선히 함으로 국세청에 새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는 특별 주문을 했다는 후문이다.

해남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법학과(학사·석사·박사)를 졸업한 박 씨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로 7년 넘게 세무학을 가르쳐온 경험을 국세청에 접목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박 씨는 “임기 동안 납세자 눈높이에 맞춰 국세청에 새 바람을 일으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연소 국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조세실무와 이론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지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와 열정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고시 출신 동기가 국세청장이 되면 나머지 동기들은 ‘용퇴’를 할 정도로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국세청으로선 파격적인 발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세청 안팎에선 이론으로 무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美 영화투자사 1억달러 광주에 투자

K2그룹 톰 스미스 사장, 강운태 광주시장과 MOU 체결

‘미디어센터’ 설립 ... 할리우드 영화 3D 컨버팅 물량 제공

광주시가 미국의 영화투자회사인 K2 그룹으로부터 1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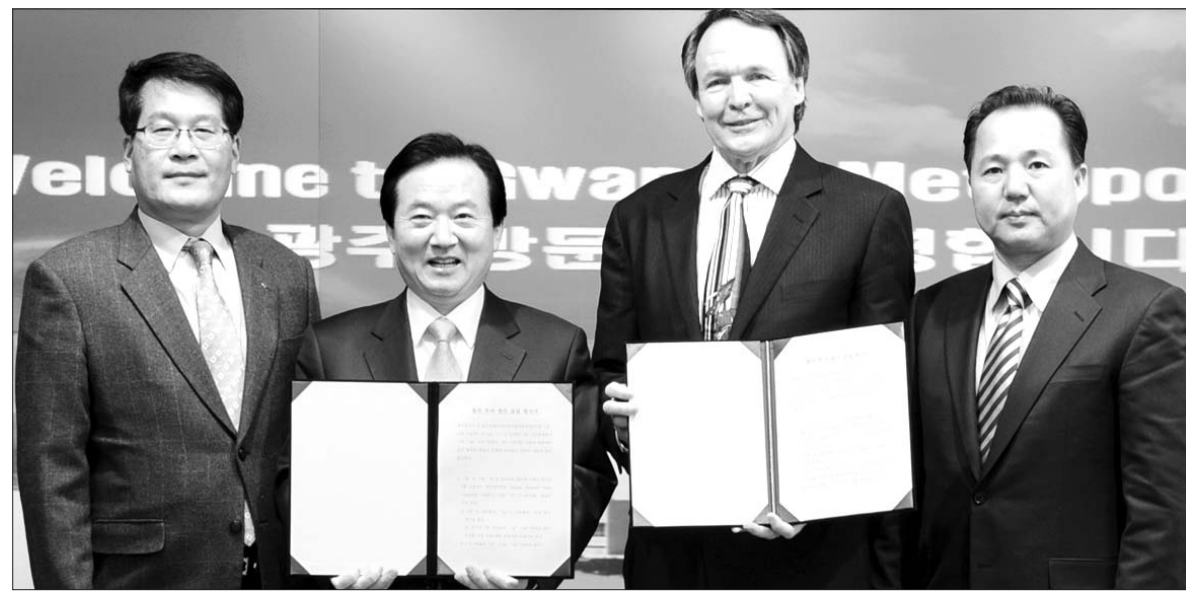
광주시는 30일, 할리우드 영화투자사로서 3D와 항공우주산업 등에서 세계최고 수준을 기술력을 보유한 K2 그룹 톰 스미스 사장이 지난 28일 광주를 방문, 강운태 시장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억달러 규모의 합작투자법인 ‘Gwangju Advanced 미디어센터’(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K2 그룹은 2500시간(영화 1200편 규모) 분량의 할리우드 2D 영화를 3D로 변환시키는 컨버팅(Converting) 물량을 신설될 미디어센터에 제공하게 된다. 컨버팅 물량의 계약액은 6억7000만달러 규모다. K2그룹은 또 할리우드 영화 20여편의 포스트 프로덕션도 광주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 영화사가 이처럼 대규모로 투자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사례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영상관련 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고용

창출 효과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막대할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K2 그룹 브리튼 리 총괄회장과 그룹 관계자 11명은 지난 23일부터 1주일간 광주를 방문, 송암동



강운태 광주시장이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미국 K2그룹과 1억달러 규모의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시진 왼쪽부터 김병승 광주문화컨텐츠법인 대표, 강운태 광주시장, 톰 스미스 K2 EON 사장, 브리튼 리 K2그룹 총괄회장. (광주시 제공)

일대에 지어지고 있는 CGI(컴퓨터그래픽 이미지)센터를 둘러보며 투자적합 여부를 타진했다. CGI센터는 오는 11월15일 완공예정이며,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강운태 시장은 “K2 그룹이 광주가 가진 예술적 끼와 열정, 문화중심도시로서의 비전과 인프라를 높이 평가하고 투자 파트너로 참여해 준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K2 그룹과 함께하는 합작투자 법인이 반드시 성

공해 세계적인 최첨단 미디어 제작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톰 스미스 사장은 “광주시는 최첨단 영상문화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투자를 결정했다”며 “할리우드를 넘어선 세계 최고의 글로벌 미디어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중산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월17만7000~39만4000원씩

오는 3월부터 소득상위 30%를 제외한 중산층도 월 17만7000~39만4000원의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만 0~4세 영유아를 자녀로 둔 가구 가운데 보육료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중전에는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았지만 소득하위 50~70% 가구는 정부 지원단가의 60~30%를 차등해 지급받았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480만원 이하이면 보육료 전액지원 혜택을 받게 돼 전액 지원 대상자가 지난해 76만1000명에서 올해는 92만2000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만 0세는 월 39만4000원, 만 1세는 34만7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 만 3세는 19만7000원, 만 4세는 17만7000원을 받게 된다. 만 5세 아동은 작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까지 월 17만7000원의 보육료를 전액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영유아를 둔 맞벌이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해 보육료 지원을 확대했다. /연합뉴스

작년 전남 인구 1만61명 떠났다

광주는 수완지구 개발 영향 3년 연속 증가

전남은 지난해 1만61명의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전출초과 상위 지역에 꼽혔다. 반면 광주는 인구유입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입초과 규모가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컸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은 전출자 수가 전입자 수보다 1만61명이나 많아 서울(-11만5023명), 부산(-2만8466명), 대구(-1만1840명)에 이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지역으로 꼽혔다.

광주는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순이동자 수가 3531명으로 지난 2008년 447명, 2009년 3108명으로 3년 연속 유입 인구가 증가했으며, 경기(14만2437명), 충남(1만6178명), 충북(5964명), 인천(3612명)과 함께 전입초과 규모가 큰 지역에 해당했다. 특히 광산구의 경우 수완택지 개발

로 전입인구가 늘면서 순이동자 수만 1만5443명으로 전국 25개 시군구 중에서 상위 5위를 기록했다. 반면 동구는 2009년에는 인구가 2184명이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는 7690명의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인구 감소폭이 증가했으며, 북구도 2009년과 2010년 각각 2년 연속 인구가 감소했다.

한편 전국의 이동자 수는 822만6000명으로 2009년의 848만7000명보다 3.1% 감소했으며 1998년(815만600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아울러 지난해 전국 이동자 가운데 사·도 경계를 넘어 이동한 인구는 266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4% 줄었다. 이는 1980년에 260만5000명을 기록한 이후 30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 아이디어 공모

광주시는 다음달 24일까지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교통사고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광주시는 30일 “교통사고 발생 전 1위라는 불명예를 탈피하고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의 이미지에 걸맞은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과 해결방안을 직접 시민들에게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교통안전의식 개선 및 홍보방안’, ‘캠페인 및 교육활성화 방안’, ‘제도 및 시설 개선방안’ 등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최고 100만원의 부상이 지급된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제주 관광객 160만명 육박

벚길 다양화 시간 단축 이음객 60% 급증

전남과 제주를 오가는 벚길이 다양화되고 시간도 크게 단축되면서 벚길을 이용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제주간 벚길을 이용한 관광객은 여객 매표기준으로 156만명에 달했다.

이는 전년(91만명)보다 무려 60%나 늘어난 것으로 월별로는 4~5월중 각 16만명, 관광 성수기인 8월에 21만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4300명 꼴로 전남~제주 벚길을 이용한 셈이다. 이용 항구별로는 목포항이 71만명으로 45%를 차지했으며 완도항 36만명(23%), 장흥 노력도항 26만명(17%), 녹동항 23만명(15%) 등이다.

여객객 급증은 지난해 7월 장흥 노력도와 제주 성산포간(1시간 50분대) 벚길이 열리면서 시간이 크게 단축됐고 선사별도 고객 수요에 맞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데 따른 것이다.

전남~제주 신규 벚길 개설도 늘어나 해남우수영~제주 항로가 오는 10월 운항을 목표로 선사측과 협상을 진행중이며 목포~제주 운항선인 퀴메리호(9600t급)도 최신식 시설을 갖춘 스타크루즈호로 교체됐다.

현재 운항중인 전남~제주 벚길은 목포~제주 3척, 완도~제주 3척 등 총 4개 노선 8척으로 전남도는 올해는 200만명 이상이 전남의 벚길을 이용해 제주도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2010년 연안여객선 이용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벚길 여객 232만4348명 가운데 69%인 160여만명이 전남지역 항구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빛의 만평

-김종두



저쪽 5·18(?)이 남 일 같지 않다

티켓몽키에서는
매일 밤 11시, 광주의 모든 곳이 반값이 됩니다.

50%~90%

<http://www.t-mong.co.kr>

광주의 대표 소셜커머스
티켓몽키에서 하루에 한가지!
광주의 모든것들을 **반값**에 드립니다.

티켓 몽키 어린이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다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티켓몽키 입점 문의 **070-7581-7766**

티켓몽키에서는 광주의 모든 곳을 50%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NAVER 티켓몽키 를 검색해보세요.

발목 펌프 운동봉

당신은 약을 전혀 먹지않고 불노장생(무병장수)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노력만 하면 확실히 가능합니다.

1일 3,000회(소요시간 약 30분)=10,000보 걷는 효과!!

2011년 신제품 목침 겸용 발목펌프 운동봉이란?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cm 반원목침에 스프링과 소음진동방지가 장착되어 있어 취침 시는 목침으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기상하면 발목펌프 운동봉으로 평생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제30-0465075 발목펌프 운동기구

- 목재 운동봉 가격 : 39,000원 무료배송!!
- 목침 겸용 가격 : 45,000원 무료배송!!

제일건강 상담전화 TEL 062-672-2002 H.P 010-7510-2000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2층

온라인계좌 *광주은행 125-121-002455 *농협 601154-52-335334 *예금주:시영

2009년~2010년
서울대 12명 합격

중·고 국·영·수 전문학원

양명,대성의 서울대반 강사진이 직접 수업합니다.
그동안은 별도로 상담하세요!!

강사진
언어(최복수)의 2명
영어(신경찬)의 2명
수학(주석진)의 2명

일곡동 국민학원 ☎(062) 574-0101
봉선동 국민영재학원 ☎(062) 672-0483

카카오 지역에서 상담하세요.

국비지원 교육생 모집
농산물품질관리사반

★웰빙(참살이)시대의 국가공인 유망자격증★
전국 최강의 전문강사진으로 대폭교체
취업의 꿈이 현실로 - 2013년부터
의무고용추진, FTA로 더욱 중요!

1월초 개강!! **수시등록가능**
(주간/주말반 전액석차 있음)

[본원 교수진 동영상 강의 무료보강] 2개월 15만원
www.egosi.co.kr [1차 : 5월 29일 시험대비]
062)226-5050 으로 신청바람!!

★농업인·축산인·임업인 특별혜택★
◆언제든지 청강 환영!
[서승철경영학박사, 김세미농학박사, 윤종아(전)풍관원, 초대농부총사업위원장, 손승운, 송상호, 전정훈교수진]
◆7·9급 농업직, 농촌지도사
18년 경력의 손승운 교수팀 직강

접농업전문원 226-5050
위치: 전남여고 건너편 학원가입구, 광주고시학원건물1층(동부경찰서서 전남여고 쪽)